

6/11/23

설교 제목: 왕이 오시리니 크게 기뻐할지어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9 장 1- 17 절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스 9:1)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스 9:2)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스 9: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

(스 9:4)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절관주** 겔 26:17

(스 9:5)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스 9: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절관주** 삼상 17:44

(스 9: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절관주** 겔 25:15, 겔 25:16

(스 9: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학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절관주** 출 3:7

구원을 베푸는 왕

(스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 9: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 (속 9: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 (속 9: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절관주** 사 61:7
- (속 9:13)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 (속 9: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 (속 9: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절관주** 시 78:65, 행 2:13
- (속 9:16)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와 땅에 <sup>1)</sup>빛나리로다
- (속 9:17)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본 장에서부터 스가라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스가라서 후반부에는 2 개의 예언이 나옵니다.

9 장에서 11 장까지 첫 번째 예언이 나오고, 12 장부터 14 장까지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심판성 경고로 oracle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성 경고라고 해서 심판적인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적인 경고와 함께 희망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는 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1-8 절, 9-17 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팔레스타인 정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9-17 절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부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고성 예언입니다.

(속 9:1) 여호와와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속 9:2)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속 9:3)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도다

(속 9:4)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호와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 것이고 그 접경인 하맛 두로 시돈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함은 히브리 원어로 '맛사니 짐(burden)'으로 무거운 말씀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는 것은 하드락과 다메섹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이 예언이 이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 여호와 말씀의 경고가 그 접경인 하맛 두로 시돈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은 모두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은 지금 시리아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겸손하게 되어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입니다.

이들은 매우 지혜로왔습니다.

두로는 비록 작은 섬이지만 150 척이나 되는 아주 높고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여 적들이 쳐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앗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이 섬을 공략하기 위해 5 년이나 포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도 13 년을 공략했지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상 무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했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에 쳐넣고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자신의 지혜와 부를 믿고 교만하여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BC 332 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겸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두로와 시돈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인간이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남부 팔레스타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숙 9:5)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숙 9:6)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숙 9:7)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잇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에도 임합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은 블레셋의 5 대 도시들입니다.

블레셋의 5 대 도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갓 중 갓만 빼고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모두 해안 도시라서 무역이 발달되어 부유했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으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들도 두로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보고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들도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은 가사에 있던 임금을 사로잡아 갔고 블레셋 백성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예언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먼저 심판을 통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 후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을 착취하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의 잇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증스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악습을 버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어 유다의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부스 사람같이 된다'는 말은 예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귀화했던 것처럼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을 점령한 후 헬라 문화를 강요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 일환으로 헬라어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러한 정책이 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들 중 크리스찬이 약 8%가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적국들이 멸망을 당해도 예루살렘은 당신이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 9:8)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획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에서 '내 집'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으로부터 당한 억울함을 친히 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은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설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꿈에 하나님이나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여 그가 예루살렘 정복의 꿈을 접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마지막 날 심판 중에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봅니다.

다음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스 9: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의 침략 하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발동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못박히기까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의 겸비의 극치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폭력으로 성립될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어떤 한 민족에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또 무궁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속 9: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초림하신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재림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유다에 임할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속 9:11)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속 9:12)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네 언약의 피’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은 유대 민족에게 이루어질 언약인 동시에 장차 올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는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물없는 구덩이’란 유대인에게 있어 소망없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올 소망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마지막 날 재림의 날 하나님이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속 9:13)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속 9: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 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속 9: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뱀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기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초림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원수를 삼키고 밟게 될 것이고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자들을 호위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심으시니 그들이 보석같이 빛날 것입니다.

(속 9:16)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속 9:17)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물없는 구렁이에 빠졌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간은 물없는 구렁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어 주시다니요.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물없는 구덩이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천국 문이 있는데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